

기재부 재정관리관,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및 간담회 개최

- 공공기관 1사분기 집행현황 점검 및 상반기 집행전망 논의
- 특히, 투자계획 비중이 큰 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업들의 신속집행 강조
- 투자집행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4.14.(월) 15시 한국수자원공사(대전 신탄진로)에서 열린 '25년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1사분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집행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기재부 재정관리관(주재), 주요 공공기관 26개 부기관장 참석

** (현장참석) 7개 기관(토지주택공사, 철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에스알,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영상참석) 19개 주요 공공기관(한전, 한수원, 캠코, 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이번 제10차 점검회의에서는 1사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후의 집행 여건과 전망 등을 논의하였다.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 투자집행 목표액은 작년보다 2.5조원이 늘어난 66조원이다. 이 가운데 37.6조원(57.0%)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사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은 19.5조원(29.5%)으로 '24년 동 기간 집행액 19.0조원 대비 0.5조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5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두 1조원 이상을 집행하여 1사분기 실적을 견인하였다.

| 구 분 (단위 : 조원) | '24년 | | | '25년 | | | 증감 (b-a) |
|------------------|------|------|----------------|------|------|----------------|-------------|
| | 목표 | | 1분기 집행실적(a) | 목표 | | 1분기 집행실적(b) | |
| | 연간 | 상반기 | | 연간 | 상반기 | | |
| 합 계 | 63.5 | 34.9 | 19.0 | 66.0 | 37.6 | 19.5 | +0.5 |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사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상반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기관 참석)에서는 현장안전을 특히 강조했으며,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들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비의 적기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 | | |
|-------|----------------|-----|----------------------------|
| 담당 부서 |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이민호 (044-215-5630) |
| | | 담당자 | 사무관 이숙경 (lskyung@korea.kr) |

